|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５年生以上―課題文⑤**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  소금 장수가 고개를 넘어가다가 굶주　린 호랑이와 마주 쳤습니다.  “호랑이님，제발 한 번만 살려 주십시  오.”  호랑이는 들은 체도 하지 않고，소금 장수를 통째로 삼켜 버렸습니다.  하지만，호랑이는 조금도 배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기름 장수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기름 장수도 한입에 삼켜 버렸　습니다.  호랑이 뱃속에서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가 만났습니다.  “나는 기름 장수인데，당신은 누구요?”  “나는 소금 장수요. 여기서 어떻게 빠　져 나가지요?”  “어유，어두워. 먼저 불이나 켜고 살펴　봅시다.”  두 사람은 등잔불을 켜고 빠져 나갈 궁리를 하였습니다.  그 때，호랑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　나는　바람에 그만 등잔이 엎어졌습니　다. 깜짝 놀란 호랑이는 펄쩍펄쩍 뛰　었습니다.  “아이고，뜨거워라. 아이고，호랑이 죽　네!”  호랑이는 야단이 났습니다.  塩売りと油売り  塩売りがをえる時にえたと出くわしました。  「虎様、どうか一回だけしてください」  虎は聞きもしないで、塩売りを丸ごと飲みんでしまいました。  しかし、虎は少しもおがになりませんでした。  しばらくして油売りが現われました。  虎は油売りも一口で飲み込んでしまいました。  虎の腹の中で塩売りと油売りが出会いました。  「私は油を売る者ですが、あなたはですか?」  「私は塩を売る者です。ここからどうやったらけ出せますかね?」  「ああ、暗い。まず火をつけてまわりを調べてみましょう。」  二人は油皿に火をともして抜け出す方法を考えました。  その時、虎が急にむっくり起きたせいでつい油皿を落としてしまいました。  びっくりした虎はぴょんぴょんと飛びねました。  「ああ、熱い。 ああ、死ぬ!」  虎は大変な目にあいました。 | | | | | | | |
|  | |  |  |  |  |  |  |